

## 2012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증가율 둔화 원인 및 시사점

방호경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전문연구원 (bassgu@kiep.go.kr, Tel: 3460-1126)

나승권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전문연구원 (skna@kiep.go.kr, Tel: 3460-1130)



## 차 례 ●●●

1. 배경
2. 최근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 현황 및 특징
3.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증가율 둔화 원인 분석
4. 요약 및 시사점

## 주요 내용 ●●●

- ▶ 2012년 상반기(1~5월) 한국의 대중(對中) 및 대일(對日)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.
  - 이에 보고에서는 내연적 성장(Intensive margins) 및 외연적 성장(Extensive margins)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최근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증가율 둔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함.
- ▶ 2012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발견하였음.
  - 첫째, 2012년 상반기 한국의 총 수출증가율에서 일본의 기여도가 중국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.
  - 둘째, 최근 한국의 역내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수출물량이 감소하였으나 제품 단위당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여 수요 측면과 함께 공급 측면에 따른 충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.
  - 셋째, 한국의 대중 수출 변화는 주로 내연적 성장(물량 및 가격 효과)에 기인한 반면, 대일 수출은 외연적 성장(순 진입효과)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.
  - 넷째, 최근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은 각각 부(-) 및 정(+의 증가율을 시현하였는데, 이는 내연적 및 외연적 성장이 양국에 상이하게 작용한 결과에 기인함.
- ▶ 이상의 주요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음.
  - 첫째, 공급 측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.
  - 둘째, 한·중·일 3국간 양자 혹은 다자간 FTA는 내연적 성장에 따른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  - 셋째, 최근 한국의 대일 수출에서 외연적 성장의 기여가 높은 것을 고려할 때 한·일 FTA 상품양허 협상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.
  - 넷째,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에서 내연적 및 외연적 성장의 확대를 위해 동일본 지진 이후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일본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.
  - 다섯째, 외연적 성장으로 수출시장에 진입한 품목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역내 수출증가의 역동성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역내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됨.

## 1. 배경

-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'2012년 상반기(1~5월) 수출입 동향'에 따르면, 한국의 대중(對中) 및 대일(對日)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.
  - 2012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-1.3%, 2.8%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음.
- 한국의 대외교역에서 중국 및 일본의 위상을 고려할 때 단순히 총계적 혹은 산업별 증가율 정도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, 대중·대일 수출증가율 위축의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함.
  - 중국과 일본은 교역규모는 물론 분업구조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며, 특히 대외여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이들 국가와의 무역 흐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함.
  - 특히 한·중·일 3국간 양자 혹은 다자간 FTA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구조 변화에 대한 꾸준한 점검·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.
- 본고에서는 내연적 성장(Intensive margins) 및 외연적 성장(Extensive margins)의 개념<sup>1)</sup>을 활용하여 2012년 상반기(1~5월)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증가율 둔화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함.
  - 먼저 2012년 상반기를 포함해 최근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대해 검토하고,
  - HS 10단위 무역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수출 변화 요인을 가격효과(price effect), 물량효과(quantity effect), 신규품목 진입효과(new product), 퇴출품목효과(exiting products)로 분해한 후 어떤 요인에 의해 수출 감소 혹은 둔화가 발생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함.
-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대외통상정책 등과 관련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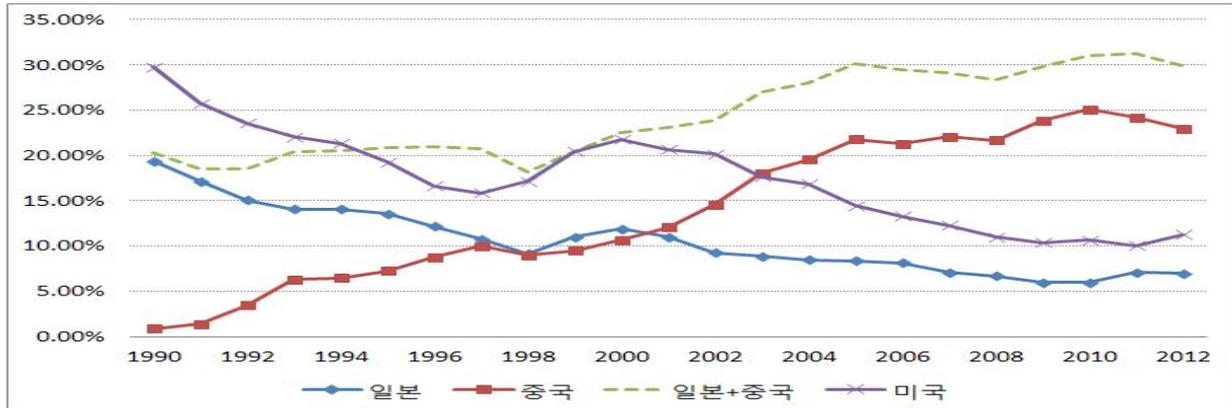
## 2. 최근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 현황 및 특징

- 일본과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한국의 3대 수출국이며, 특히 대중 수출급증과 함께 대중·대일 수출이 국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.
  - 한국의 대중 수출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0.9%에서 2011년 24.2%로 확대되었으며, 해당 기간에 한국의 대중 수출규모는 연평균 31.2%씩 성장하여 2003년부터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하였음.

1) 내연적 성장(Intensive margins) 및 외연적 성장(Extensive margins)에 대한 정의는 이 글의 5페이지 참고.

- 대일 수출이 한국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축소되어왔으나 2000년 중반 이후 약 7% 수준에서 안정화 추세를 보임.
- 이에 따라 대중·대일 수출 비중은 2000년 22.6%에서 2011년 31.3%(2012년 1~5월 누계액 기준으로는 30%)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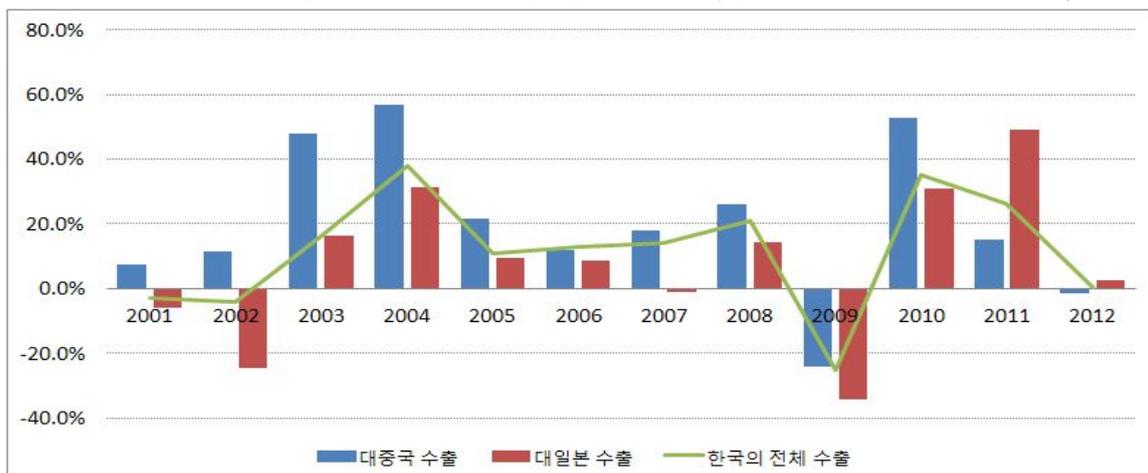
그림 1. 한국의 주요 수출국별 점유 비중



주: 2012년은 1~5월까지 누계액임.  
자료: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자료(www.kita.net) 참고.

- 특히 2012년 1~5월 대중 및 대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-1.3% 및 2.8% 증가하여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 이후 가장 큰 하락추세를 보임.
-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수출증가율 또한 0.5%에 그치고 있는 점을 볼 때 대중·대일 수출감소 추세 또한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 그동안 높은 증가세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외수출 확대를 견인하던 대중 수출액이 2011년과 2012년 상반기 연속 일본보다 낮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.

그림 2.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액 증가율 변화 추이(각 연도별 1~5월 누적액 기준)



자료: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자료(www.kita.net) 참고.

-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구조적인 측면에서 대중·대일 수출증가율 변화 요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  - 실제 수출증가율이 급감하였던 2005년(1~5월)과 2012년(1~5월) 시점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체 수출증가율에 대한 대중·대일 수출 기여율을 살펴본 결과 2005년 대중 수출의 기여율은 37.8%, 대일 수출의 기여율은 7.6%였으나, 2012년에는 각각 -59.2%, 37.1%로 변화함.<sup>2)</sup>
  - 즉 2012년 상반기 한국의 전체 수출증가율 주도하던 중국의 기여도(-0.3)가 일본(0.2)보다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.
    - 마찬가지로 2011년 전년대비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증가율 또한 각각 14.8% 및 40.8%를 기록하여 일본이 중국보다 높은 증가세를 시현한 바 있음.<sup>3)</sup>
  -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 고도성장기로 접어들어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특징이므로, 대중·대일 수출의 추세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 변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.
-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2012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증가율 둔화 원인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자 함.

### 3.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증가율 둔화 원인 분석

- 본고는 한국의 대중·대일 수출증가율 둔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내연적 성장(Intensive margins) 및 외연적 성장(Extensive margins) 개념을 활용하고자 함.
  - 일반적으로 내연적 성장은 양국간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품목의 물량 혹은 가격 변화에 따라 수출액이 변화하는 요인을 의미하고, 외연적 성장은 수출되는 품목수 변화에 따라 수출액이 변화하는 요인을 나타냄.<sup>4)</sup>
  - 따라서 내연적 성장은 물량효과(quantity effect) 및 가격효과(price effect), 외연적 성장은 신규품목 진입효과(new products) 및 퇴출품목효과(exiting effects)로 각각 분해할 수 있음.
- 본고는 Haddad, Harrison and Hausman(2011)의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 변화 요인을 물량효과 및 가격효과와 신규품목 진입효과 및 퇴출품목효과로 각각 분해하고자 함.

2) 해당 국가의 기여율에 증가율을 곱하면 기여도가 되는데, 이는 각국 전체 증가율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나타냄. 즉, 기여도=대외수출 증가율×해당 국가의 기여율. 기여율=수출증가분(액)/대외총수출증가분(액)×100.

3) 2011년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에서 중국 및 일본의 기여도를 계산하면 각각 3.7 및 2.5로 중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4) 이에 대한 자세한 개념은 Chaney(2008), Bernard, Jensen, Redding, and Schott(2009), Haddad, Harrison and Hausman(2011) 등을 참고.

- 이를 위한 구체적 산식은 다음과 같음.<sup>5)</sup>

$$\frac{dv_t}{v_{t-1}} = \frac{\sum_{c=1}^C \frac{p_t^c + p_{t-1}^c}{2} \Delta q_t^c}{v_{t-1}} + \frac{\sum_{c=1}^C \Delta p_t^c \frac{q_t^c + q_{t-1}^c}{2}}{v_{t-1}} + \frac{\sum_{n=1}^N p_t^n q_t^n}{v_{t-1}} - \frac{\sum_{x=1}^X p_{t-1}^x q_{t-1}^x}{v_{t-1}}$$

○ 단,  $\frac{dv_t}{v_{t-1}}$ 는 t-1기에서 t기 동안 수출액 증가율을 나타내고, c는 t-1기 및 t기에 지속적으로 거래된 품목, n은 t기에만 거래된 품목, x는 t-1기에만 거래된 품목을 각각 의미함. 한편 p와 q는 품목의 가격 및 물량을 나타냄.

- 결국 수출증가율은 물량효과, 가격효과 및 신규품목 진입효과의 증가율을 합한 수치에 퇴출품목 증가율을 뺀 것으로 구성됨.

- 한편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액을 실질치로 변환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수출물가지수(2005=100)를 이용하였으며, 물량은 중량 기준을 사용하였음.<sup>6)</sup>

■ 2012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 수출 품목수는 감소한 반면, 대일 수출 품목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대중 교역과 달리 대일 교역은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품목이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남(표 1 참고).

- 한국의 대중 수출 품목수는 2012년 상반기에 총 5,725개로 전년동기대비 12개가 감소했으나, 대일 수출 품목수는 같은 기간 동안 104개가 늘어난 5,260개로 조사됨.

■ 한편 2012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·대일 수출 모두 최근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.

- 물량감소에 따른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액 감소는 중국의 경우 24억 3천만 달러, 일본은 5억 1천만 달러에 달하고, 이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4.7%, 3.4%씩 줄어든 수치임.

■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 모두 물량은 감소하였으나 제품단위당 수출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(표 1 참고).

- 일반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충격으로 구분할 수 있음.<sup>7)</sup>

- 수요 측면의 충격이 올 경우 물량과 제품 가격이 동시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, 공급 측면의 충격이 올 경우 물량은 감소하나 제품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게 됨.<sup>8)</sup>

5) 구체적 산식 도출과정은 Haddad, Harrison and Hausman(2011) 참고.

6) 무역자료는 한국무역협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음. 소수 품목의 경우 중량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았으나 이들 품목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(0.0%)은 극히 미미함.

7) 수요 측면의 충격은 소득과 부의 감소로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하고, 공급 측면의 충격은 유동성 부족이 무역과 투자를 제한하여 나타나는 효과를 일컫음.

8) Haddad, Harrison and Hausman(2011) 참고.

- 보다 면밀한 분석과 조사가 요구되겠으나, 최근과 같이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물량은 감소하나 제 품단위당 수출가격이 상승하는 특징을 볼 때 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감소 및 완화는 수요 측면과 더불어 공급 측면에 따른 충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.

■ 특히 주목되는 특징은 한국의 대중 수출 변화가 주로 내연적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, 대일 수출은 주로 외연적 성장에 의해 변화한 것임.

- 2012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 수출액 변화를 절대규모로 보면, 내연적 성장의 변동규모가 총 50억 달러 (물량효과+가격효과의 절대치)이고, 외연적 성장은 29억 6천만 달러(진입효과+퇴출효과의 절대치)를 기록함.

- 반면 한국의 대일 수출액 변화 규모는 내연적 성장이 12억 7천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외연적 성장은 무려 43억 1천만 달러에 달함.

■ 그 결과, 대중 수출의 경우 2011년 상반기에 수출된 품목이 2012년 상반기에 수출되지 않은 퇴출효과가 신규품목 진입효과를 압도한 반면, 대일 수출에서는 신규품목 진입효과가 퇴출효과를 압도하는 서로 상이한 특징을 보임.

- 품목 개수를 보면, 중국의 경우 퇴출품목(exiting products)이 948개로 진입품목(new products) 936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, 일본은 진입품목(1,022)이 퇴출품목(918)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됨.

- 수출액 변화에서도 대중 수출에서는 순퇴출 효과(-2억 달러)가 나타난 반면, 대일 수출에서는 순진입 효과(3억 7천만 달러)가 발생함.

표 1. 2012년 상반기(1~5월)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액 변화의 분해(HS 10단위 기준)

(단위: 억 달러, %, 전년동기대비)

구분		중국			일본		
		품목수	수출액 변화 (억 달러)	증가율(%)	품목수	수출액 변화 (억 달러)	증가율
내연적 성장	물량효과	4,789	-24.3	-4.71	4,238	-5.1	-3.40
	가격효과		25.7	4.97		7.6	5.03
외연적 성장	진입효과	936	13.8	2.68	1,022	23.4	15.51
	퇴출효과	948	-15.8	-3.05	918	-19.7	-13.06
계		5,725(▼12)	-0.6	-0.11(-1.3)	5,260(▲104)	6.2	4.09(2.8)

주: 1) 상기 금액은 실질치임. 2) 품목수의 ( ) 안은 전년동기대비 총 수출 품목수의 변화임.

3) 증가율의 ( ) 안은 명목수출금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.

자료: 한국무역협회 무역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.

■ 결국 2012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 수출은 부(-)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, 대일 수출증가율은 크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정(+)의 증가세를 보였는데, 이는 양국에 대한 한국의 내연적 성장 및 외연적 성장이 각각 상이하게 작용한 결과에 기인함.

- 한국의 대중 수출은 내연적 성장이 큰 폭으로 변화하였고, 물량 및 가격효과로 분해한 결과 가격효과 상승이 물량효과의 감소를 상쇄한 것으로 나타남. 그러나 외연적 성장에서 순퇴출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2012년 상반기 대중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천만 달러(실질치) 감소하여 결국 부의 증가세(-0.11%)를 기록함.
- 한국의 대일 수출은 중국과 같이 가격효과 상승이 물량효과의 감소를 상쇄하였으나, 중국과 달리 외연적 성장의 순진입효과에 따라 2012년 상반기 대일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억 2천만 달러 증가하여 결국 정(+)의 증가세(4.09%)를 시현함.

## 4. 요약 및 시사점

### 가. 요약

- 본고는 2012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증가율 둔화 원인을 파악하고자 양국간 수출액 변화를 내연적 성장 및 외연적 성장으로 분해하였음.
  - 이를 위해 수출품목을 가장 세분화시킨 HS 10단위 품목기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.
- 2012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음.
  - 첫째, 그동안 한국의 총 수출증가율에서 높은 기여도를 보여온 중국이 2012년 상반기에는 일본(0.2)보다 낮은 -0.3의 기여도를 보임.
  - 둘째, 2012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은 최근 세계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수출물량은 감소하였으나 제품단위당 수출가격은 오히려 상승함.
    - 이는 수요 측면의 충격과 함께 공급 측면에 따른 충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함.
  - 셋째, 한국의 대중 수출 변화는 주로 내연적 성장(물량 및 가격 효과)에 기인한 반면, 대일 수출은 외연적 성장(순진입효과)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.
  - 넷째, 2012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은 각각 부(-)의 증가율 및 정(+)의 증가율을 시현하였는데, 이는 내연적 성장 및 외연적 성장이 양국에 각각 상이하게 작용한 결과에 기인함.

### 나. 정책적 시사점

- 첫째, 수요 측면의 충격에 따른 수출액 감소는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직접 관여가 불가능한 외생변수이나 공급 측면에 따른 충격이 영향을 미칠 경우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가능한 내생변수가 됨.

-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가 무역금융(trade credit)의 만기단축과 비용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.
- 따라서 공급 측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,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.
  - 무역금융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상품이므로 은행의 입장에서는 고수익성 상품에 자금을 집중할 경향이 커지게 되며, 그 결과 무역금융의 비중을 줄일 유인이 커지게 됨.

■ 둘째, 최근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·중·일 3국간 양자 및 다자간 FTA 체결은 내연적 성장에 따른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
- 이론적·실증적 연구<sup>9)</sup>에 따르면 특히 내연적 성장이 관세장벽 및 무역비용과 부(-)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.

■ 셋째, 2012년 상반기 한국의 대일 수출에서 외연적 성장의 기여가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이는 한·일 FTA 상품양허 협상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.

- 최근 한국의 대일 수출은 중국과 달리 신규품목 진입효과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바, 한·일 FTA 상품양허 협상 시 향후 한국의 대일 수출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, 즉 한·일 양국간 산업구조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전략이 요구됨.
- 이를 위해서는 한·중·일 3국을 대상으로 분석대상기간을 가능한 한 최대한 하여 내연적 및 외연적 성장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, 이러한 변화의 결정요인에 대해 계량분석을 통한 정량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함.

■ 넷째,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의 내연적·외연적 성장을 위해 동일본 지진 이후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.

- 2012년 상반기 한국의 대일 수출 변화에서 중국과 달리 외연적 성장이 크게 증가한 것은 동일본 지진 이후 일본 기업의 대한국 투자 증가가 기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.
  - 실제 2011년 1/4분기 이후 일본의 대한(對韓) 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,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치 규모는 2011년 1/4분기 3.7억 달러에서 2011년 4/4분기 8.6억 달러, 2012년 2/4분기 약 17.2억 달러로 급격한 상승추세를 보임.
- 기업경영여건(법인세율, 환율 여건, FTA로 인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)상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한국으로의 투자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일본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차별적·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.

9) Krugman(1980); Chaney(2008); Cole(2008) 등.

- 다섯째, 외연적 성장으로 수출시장에 진입한 품목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증가의 역동성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수출규모가 현재는 적을지라도 향후 견고한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역내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등 정부의 공공재적 정보제공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임.
- 정부는 신규진입품목 분야에 대해 시장 내 정보불균형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업체가 보다 쉽게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들이 제품 차별화 및 다양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임. **KIEP**